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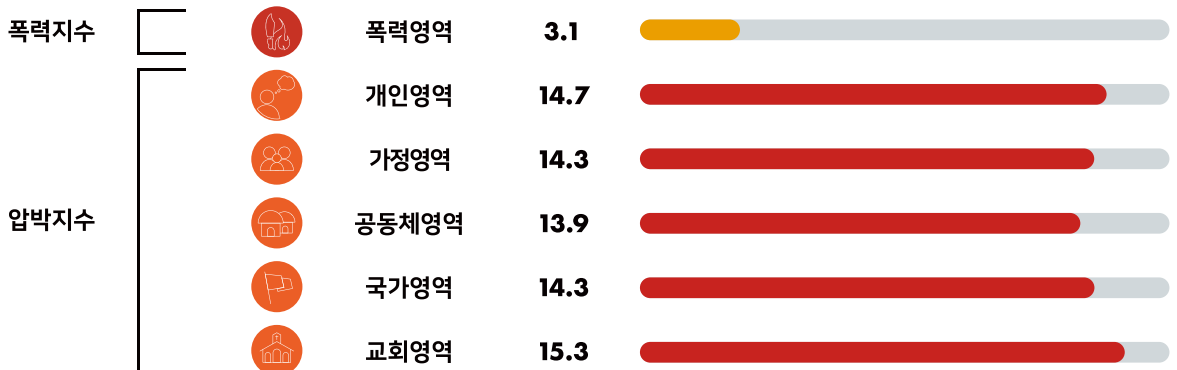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모리타니 (MAURITANIA)

기독교 박해지수
21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한다. 최근 사건들은 모리타니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사회적 적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여기에는 세례 영상 공개 이후 지속된 사회적 적대감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시신이 파헤쳐진 사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적 환경은 그들이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 이주민을 포함한 비(非)모리타니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 역시 무슬림에 대한 개종 권유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투옥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엄격한 배교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이후 이러한 법에는 회개를 근거로 한 감경 가능성이 없는 사형이 포함되어 있어, 이슬람을 떠나거나 신성모독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무슬림에게 처형이 의무화된다.

모리타니 (MAURITANIA)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주아니 대통령

인구 : 5,128,000명

기독교인 수 : 11,1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1,100	0.2
무슬림	5,090,000	99.3
민속 종교	20,900	0.4
기타	6,000	0.1
	합계	100%

출처²

모리타니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국가로, 아랍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를 잇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모리타니에는 사하라 이남 민족들과 산하자 이마지겐(Sanhajah Imazighen, '베르베르인')이 정착했다. 이 지역은 11세기 엄격주의적 이슬람 개혁 운동이었던 아마지그('베르베르')계 알모라비드 왕조의 발상지였으며, 이 운동은 사하라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형태의 이슬람을 확산시켰다.

모리타니에서 기록상 최초로 기독교의 영향이 나타난 것은 1442년 포르투갈인들이 아르킨 요새를 세웠을 때였다. 포르투갈인들은 이곳에서 금, 아라비아고무, 노예를 확보했다. 1904년 모리타니는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일부가 되었으나, 프랑스의 영향력은 대부분 해안 지역과 사하라 무역로에 국한되었다. 식민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인의 존재는 외국인 로마 가톨릭 신

자들에 한정되었고, 선교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0년 독립 이후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으나, 1965년 누악쇼트에 유일한 가톨릭 교구가 설립되었다.

모리타니는 광물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모리타니 사회에는 전통과 부족 중심의 질서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적 분열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다. 아랍계 백인 무어인과 베르베르인이 모리타니의 정치·경제 영역을 지배하는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흑인 무어인인 하라틴(Haratin)은 인구의 약 70%를 차지함에도 대체로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대부분의 모리타니인은 수니파 무슬림이다. 정부는 개종 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감도 높다. 배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이 형벌은 집행되지 않았다.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배교와 신성모독을 금지한다. 법은 비(非)이슬람 종교 자료의 인쇄, 배포, 수입을 제한하지만, 개인 소유는 허용한다. 오늘날 모리타니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세네갈과 기니비사우 같은 인근 사하라 이남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제한적인 종교의 자유를 허용받아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무슬림으로 간주되는 모리타니인들에

¹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 신자가 기독교 인구의 다수를 이룬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현지 기독교인은 소수이며, 가족, 사회, 정부로부터 극심한 압박에 직면한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부족과 가족 간 유대는 농촌 지역에서 특히 엄격하지만, 수도 누악쇼트에서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매우 클 수 있다. 무장세력이나 다른 범죄 집단에 의한 납치는 전국적으로 위협 요소이며, 특히 외국인에게 그러하다. 다만 수도 누악쇼트 주변의 서부 지역은 대체로 안전한 편이다.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와 서아프리카 통일과 지하드 운동(MUJAO)은 특히 동부 국경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로마 가톨릭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며, 그 뒤를 모리타니 남쪽 국가들에서 온 개신교인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따른다. 서구 출신 기독교인도 소수 존재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 기독교인들은 민족적 편견과 국내 이슬람주의 극단주의와 관련된 압박을 모두 겪으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다섯 곳의 성당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교단도 새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독교 개종자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슬람주의 집단, 확대 가족, 지역 사회로부터 오는 압박과 폭력에 매우 취약하다. 이 유목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공동체적 상호 의존이 필요하다. 개종 사실이 공개되면 개종자들은 공동체 내 지위를 잃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 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주의적 억압

이슬람주의적 억압은 모리타니에서 박해의 주된 원인이다. 모리타니는 스스로 이슬람 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로, 이슬람주의가 지배적인 정치 이념이다. 비(非)무슬림은 위협과 박해에 직면하며, 특히 강경파 집단으로부터 그러한 압박을 받는다. 많은 모리타니인이 북아프리카뿐 아니라 시리아와 이라크의 폭력적 이슬람주의 무장단체에 가담했다. 정부는 이슬람주의 무장세력과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 운동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허용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배척받으며 가장 혹독한 박해에 직면한다.

민족·종교적 적대감과 결합된 씨족 억압

도시화가 비교적 최근에야 진행된 모리타니의 전통적 부족 사회에서는 민족적 긴장과 종교적 긴장이 뒤섞여 있다.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개인은 가족과 정부의 압박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부족이나 민족 집단 전체로부터 집단적 수치와 박해에 직면한다. 여전히 민족성과 연결되어 있는 노예제는 이러한 분열을 더욱 악화시키며, 노예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를 이슬람을 통해 정당화한다. 노예제 반대 운동은 이슬람주의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모리타니에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은 인종적 차별과 종교적 차별을 모두 겪는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부족, 종교, 개인적 연고가 모리타니 사회를 지배하며, 이는 정부 내부를 포함해 광범위한 연고주의와 부패를 조장한다. 반(反)부패 노력은 대체로 하급 위반자들만을 겨냥하는 경향이 있다. 고위층 부패를 조사하는 언론인들은 협박, 구금, 명예훼손 혐의의 위협에 처하며, 군부 및 대통령실과 연계된 이들은 부를 축적하고 대체로 처벌받지 않는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려 하며, 기독교의 영향력을 위협이나 체면 손상으로 인식할 경우 박해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당국은 이슬람주의 집단들 앞에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억압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모리타니의 부족 사회에서 여성은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여성 개종자들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식량을 박탈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받을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배척당할 위험이 있다. 기혼 여성 개종자들은 쉽게 이혼당하고 생계 수단 없이 남겨질 수 있으며, 일부다처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슬림 여성(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도 포함)이 기독교 남성과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할 법적 권리 거부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남성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특히 구금될 위험이 크며, 추가적인 감시와 살해 위협을 받는다. 남성 개종자들 역시 가족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 직면하며, 여기에는 배척, 가정에서의 추방, 신체적 폭력이 포함된다. 또한 처벌의 한 형태로 취업 기회를 잃거나, 공직에서 쫓겨나가거나, 지역 사회가 이들의 사업을 불매하는 일을 겪을 위험도 있다. 배교 혐의는 종교 법원에 제기될 수 있으며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일부는 피신하기도 한다. 강력한 “아랍화” 운동으로 인해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이 떠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신앙은 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특히 강하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21	76
2025	23	74
2024	23	72
2023	20	72
2022	23	70

점수는 1.9점 상승했다. 공동체 폭력과 국가적 억압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폭력 점수는 2.8점에서 3.7점으로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점수가 상승했으며, 교회 영역의 압박은 크게 증가했다. 모리타니 기독교인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 모두 극심한 압박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교회는 매우 신중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2월: 세레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후 모리타니 기독교 지도자 15명과 그 친족들이 셀리바비(S libaby)에서 체포되었다. 이들은 같은 달 석방되었지만, 체포와 이슬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정부의 적대적 반응은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WWL 2026 보고 기간에도 이 사건의 영향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었다. 언어적·신체적 공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적대감은 높았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 금지를 당했으며, 이들의 자녀는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겪었다.
- 2025년 4월: 기독교인을 반대하는 시위는 결국 사망한 기독교인의 시신이 파헤쳐지는 사건으로 이어졌고, 시신은 거리로 끌려다닌 뒤 도시 밖에 다시 매장되었다(MEC, 2025년 4월 9일).
- 모리타니에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거나, 교회 활동에 참석하는 데 방해를 받는 등 신앙에 근거한 차별을 정기적으로 겪는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종종 위험하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배경을 가진 이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으로 확인될 경우 차별과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크며, 개종 권유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세레는 비밀리에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슬람에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은 세레받기를 꺼린다. 이들은 발각될 경우 배교 혐의가 제기될 수 있음을 두려워한다. 이슬람에서의 개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슬람에 비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이 법은 대체로 상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에게는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가정 영역

모든 모리타니인과 그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등록된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공립 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을 들어야 하며, 차별과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모리타니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며, 개종 사실이 공개된 부모는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지역사회 영역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모리타니인들에게는 극심한 공동체적 압박이 가해진다. 침해는 배척, 사회적 차별, 경제적 배제, 심지어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

다. 이는 모리타니 사회가 민족적 경계에 따라 나뉘어 있고, 경제와 정부 전반에 부패와 후견주의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해외 기독교인들은 피부색과 신앙을 이유로 모두 차별을 받는다.

국가 영역

모리타니 형법은 배교와 신성모독에 대해 사형을 부과한다. 법적 체계는 매우 엄격하다. 이슬람을 떠나거나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모든 무슬림은 회개를 통한 감경 가능성 없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말이 이슬람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슬람 이외의 모든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종교 집회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교회 영역

프랑스 식민 통치의 유산으로 인해 로마 가톨릭교회만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외부에 공개된 예배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누악쇼트 교구의 주교좌 성당 구역 안에 있는 공간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종 권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출신 교회들은 무슬림을 교회 건물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리타니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모리타니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투옥과 구금 중 비인도적 처우에 직면한다(ICCPR 제7조, 제9조 및 제18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받기 위해 성년에 이르기 전에도 무슬림 남성과의 강제 결혼 위협에 직면한다(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수업을 들어야 하며, 신앙 때문에 차별과 압박에 직면한다(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공동체 자원 접근에서 배제되고, 이들의 사업은 불매 대상이 된다(ICCPR 제26조 및 ICESCR 제11조)

모리타니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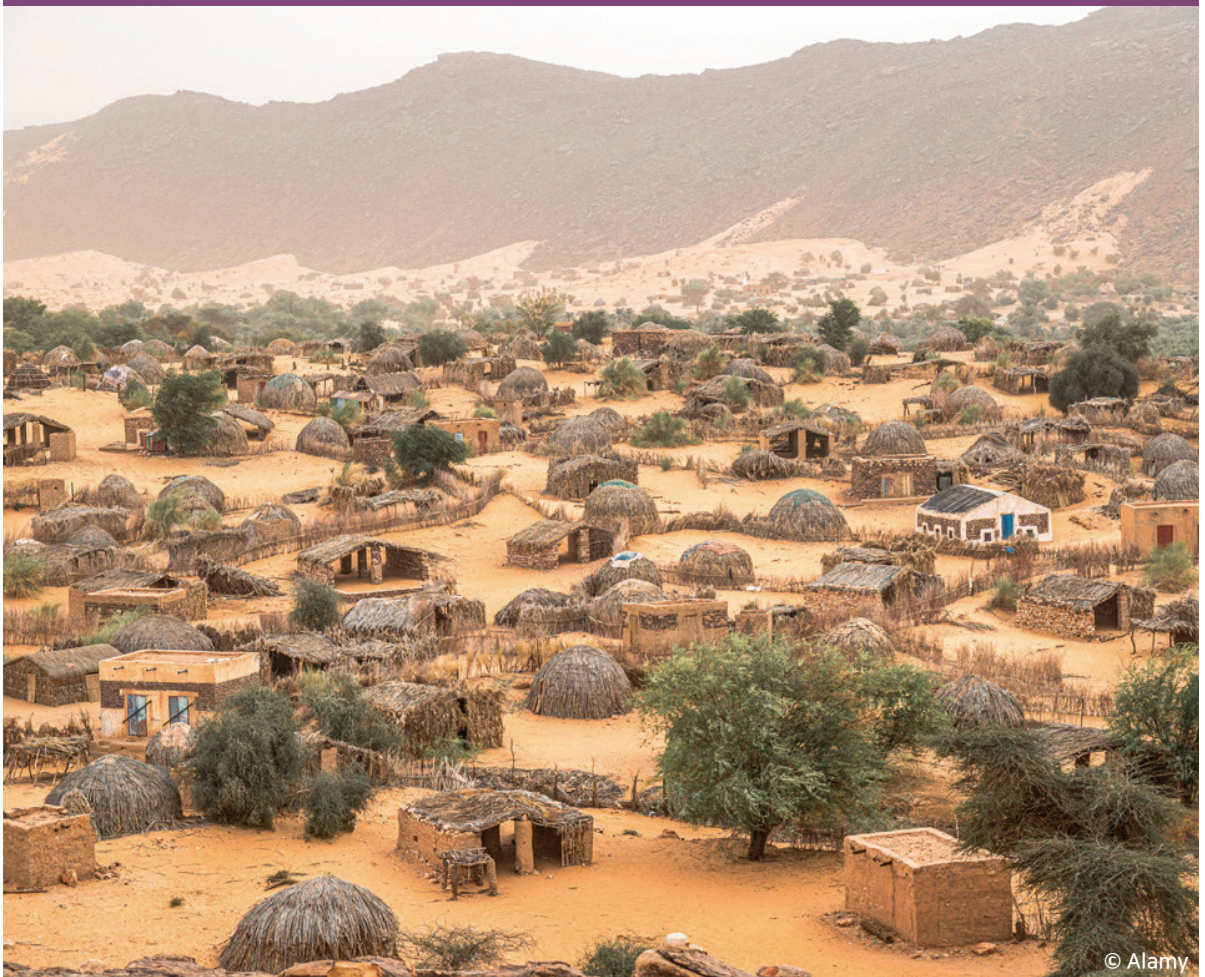
모리타니에는 규모는 매우 작지만 증가하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이 있다. 모리타니 정부는 역사적으로 이란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시아파 무슬림을 겨냥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수니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수 집단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점점 더 강하게 내며, 정부에 제한 조치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무신론 혐의를 받은 여러 사람이 체포되어 투옥된 바 있다.



오픈도어의 모리타니 사역

현지 협력 단체 및 교회와 협력하여,
오픈도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북아프리카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 리더십: 리더십 수련회, 훈련 및 멘토링을 조직한다.
- 제자훈련: 대면 방문을 통한 격려, 제자훈련, 신학 프로그램 지원, 박해 대비 훈련을 제공하고 성경과 기독교 자료를 배포한다.
- 사역: 여성들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 훈련,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법률 지원, 실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관계와 공동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지원 모임, 가족 콘퍼런스, 결혼 전 교육 과정을 조직한다.
- 생계: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 직업 훈련, 의료 지원 및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 모리타니 신자들을 위한 기도 지원 확대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